

존 오스왈트 박사, 킹스, 세션 24, 2부

열왕기하 13-14장 2부

© 2024 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그래서 아마샤는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는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요아스는 할머니 아달라로부터 목숨을 구한 소년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멘토인 대제사장이 살아 있는 동안 그는 잘 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멘토가 죽은 후, 그는 그다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의 아들 아마샤가 옵니다.

나는 이 사람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14장 2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될 때 25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 중 다수는 감옥에 있었고 나머지는 공동 섭정인 그의 아들과 함께 왕좌에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딘이었더라

그녀는 예루살렘 출신이었습니다. 자, 이거.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지만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역대기의 병행 기록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지적되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5장 2절.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정말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나요? 그것은 어떻게 생겼나요? 구획화. 관찰은.

그런 사람을 아시나요? 거울을 보지 말고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예전보다 덜 일반적일 것입니다. 나는 매료됐다.

저는 오하이오주의 농장 공동체에서 자랐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이 한창일 때 우리의 작은 감리교회에는 상당한 부흥이 있었고, 그것은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는 나의 성장 경험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나는 많은 농부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교회도 잘 안 다니고, 입에서 욕설도 한번도 꺼내본 적 없는 거친 놈들, 그 말이 끈끈한 놈들이었다.

그들이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참으로 정직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그들의 자녀들과 손자들은 주님으로부터 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50년, 60년, 100년 전에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 올바른 사람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들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자, 제 생각에 그것은 당신이 반대할 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오래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그를 Asa와 대결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산당이 여전히 존재했지만 아사의 마음은 온전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저는 그것이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엔 그 사람이 성경을 충분히 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행동에는 뭔가 아쉬운 점이 남아 있었지만, 주님을 향한 그의 헌신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예. 네, 그렇다고 믿습니다. 나는 그렇다고 믿는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할머니, 태후가 세운 우상, 그리고 다른 몇몇 우상을 파괴했다고 우리가 아주 명백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이것은 단지 그들이 여러 성지에서 야훼를 숭배하는 경우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 있습니다.

이제 나는 형편없는 성과와 온전한 마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훌륭한 성과를 주장하지만, 문제는 마음이 나누어지면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아마샤는 왕국이 확고히 손에 들어간 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자기 아버지 왕을 죽인 신하들을 처형하되 그 암살자들의 아들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부모를 죽이지 말라 한 것이니라. 그들의 자녀도 아니요, 자녀도 그 부모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이제 여러분을 출애굽기 34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전에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복은 교육의 핵심입니다. 제 생각에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구절이므로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4장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가 내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리니 나는 너와 함께 갈 수 없느니라 이 사람들을 고려하면 내가 존재하면 그들을 쓸어버릴 것이라는 것을 당신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당신이 없는 가나안 땅에 있는 우리보다 여기 광야에 있는 당신이 더 나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그 순간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았으니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출애굽기 34장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의 시작인 33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편에서 언약을 새롭게 하리라 34장 4절.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침에 일찍이 돌판 둘을 자기가 깨뜨린 것과 같은 것으로 깎아내어 시내산으로 올라갔더라.

그리고 그는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그의 이름을 주 여호와라 선포하시니라.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며 여호와를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크시며 천대까지 인자를 베푸시며 악과 패역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니라.

이제 거기서 멈춰라. 정말 신이야, 정말 신이야. 이 구절은 구약성경에서 여섯 번 더 직접적으로 인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 12번 이상 언급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야훼에 대해 무엇을 믿었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여기있어. 좋아요, 지금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인을 처벌하지 않고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부모의 죄를 자녀 삼사대까지 징벌하시느니라. 그래 맞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 나는 당신의 아이들을 데리러 갈 것입니다. 아니요. 방금 읽은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신명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부모의 죄로 인해 자녀를 죽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녀의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이지 마십시오. 아, 그 점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 구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 오, 와우.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범법과 노골적인 반역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과녁을 빗나가는 것과 같은 의도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불법, 곧 나를 저주하는 내가 범한 죄의 현실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는 나를 용서할 것입니다.

와, 맙소사. 그래서 60년 정도 마귀를 위해 살다가 회개하겠습니다. 글썄요, 행운을 빕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술에 취하기로 결정하면 당신의 아이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얻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세상에는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정말로 회개하면 용서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지은 죄의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데이비드.

어 허. 내 생각엔 당신도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금별을 줘.

정확히.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이 구절을 인용할 때 수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결과를 3~4세대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순종과 사랑의 결과, 누가 그것의 한계를 찾을 수 있습니까? 나는 약간의 족보를 작성했고, 내 뒤에는 6대에 걸친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사합니다,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과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님을 사랑했던 메노파였던 독일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러므로 열왕기서의 이 구절은 이 구절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니요, 그분은 그들의 죄를 처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에는 대가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전제로 삼지 말고 아무런 결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있을 것이다.

좋아, 다시 킹스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마샤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그 사람이었는데, 이것이 14장 7절입니다.

그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명을 쳐서 셀라를 점령하고 그 이름을 욥드엘이라 하여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와! 그래서 아마샤는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오라, 서로 맞서 싸우자고 요청하였다. 다시 한번, 아마샤는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까.

그는 단지 와! 방금 큰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나는 또 하나를 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얼마나 쉽게 신뢰하게 됩니까?

예전에 해본 적이 있어서 다시 할 수 있어요. 나는 그것에 대해 여기서 당신과 이야기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일부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들을 볼 때, 나는 그들의 성공과 그들이 부족한 순간에 그 성공을 끊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끔찍하고 끔찍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추측합니까? 지금까지 했던 일은... 알았어.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무서운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추측합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한 번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가자. 금반지를 찾으러 가자.

나는 Joe Ash의 반응을 좋아합니다. 레바논의 영경귀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딸을 내 아들에게 시집보내십시오.

그러자 레바논의 들짐승이 와서 그 영경귀를 발로 짓밟았습니다. 응, 똑똑하지 않아. 내가 이전에 말했듯이, 이스라엘은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부유했으며, 따라서 더 많은 군사 장비를 보유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작할 수 있는 땅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지 않으시면 그들과 싸울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삼손을 생각합니다. 삼손은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지 않은 줄을 알지 못하고 전과 같이 나갔더라. 그래서 아마샤가 갑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에게 패하여 모두 자기 집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벰세메스에서 아하시야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런 다음 요아스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헐었습니다.

해당 구간의 길이는 약 650피트였습니다. 여호와의 전과 왕궁 보물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다 빼앗았느니라 그는 인질을 잡고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우와. 그건 바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15년을 살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지웠다. 여호아스가 죽은 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 시간 내내 감옥에서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모른다. 하지만 그는 유다에서 암살을 당해 죽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와 웃시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감옥에 갇힌 기간이 얼마나 길든 적어도 10년 동안 웃시야는 그 쇼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집에 와서 그 일을 하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흥미롭습니다.